

## 서울경제 투자의 타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서울경제 투자 전국 투자규모의 3분의 1 수준

- 서울경제는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 것은 주지의 사실임. [표 1]에서 보듯이 1986년 부터 2000년 까지 서울경제는 국가경제 투자 전체의 약 30%를 투자하여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경제성장에도 기여함.

[표 1] 우리나라의 지역별 투자비중 (단위 : %)

지역	A군			지역	B군		
	1986-1990	1991-1995	1996-2000		1986-1990	1991-1995	1996-2000
서울	29.7	29.1	28.1	대구	4.29	4.44	3.91
부산	8.3	7.4	7.1	인천	4.8	4.7	4.6
경기	13.1	14.6	15.4	광주	1.4	2.3	2.2
경북	6.4	6.2	6.4	대전	0.7	2.0	2.0
경남	11.3	11.0	10.6	강원	3.1	2.5	2.6
				충북	2.6	3.0	3.3
				충남	5.3	4.3	5.1
				전북	3.1	3.1	3.3
				전남	5.9	5.4	5.4
A군 비중	68.9	68.3	67.6	B군 비중	31.1	31.7	32.4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표학길(2003)

- 서울투자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이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투자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논의와 정책방향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투자가 서울 이외 지역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정책의 논의에 대한 정확한 정책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경제의 투자비중을 고려할 때 서울경제 투자의 타 지역 성장에 대한 기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제 투자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 지방분권 하에 경제운영의 주체가 지방정부로 이행됨에 따라 특히 서울경제 투자의 서울 이외의 각 지역 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서울경제의 타 지역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지역 간의 경제운영 공조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서울경제 투자의 타 지역 파급효과 분석

- 서울지역의 투자증가는 일차적으로 서울지역 성장을 촉진하나 서울지역의 성장은 타 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투자증가는 이차적으로 타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타 지역 파급효과라 함.
- 서울지역 투자효과가 전국의 타 지역으로 파급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모형을 구축함.
  - 각 지역의 성장률을 설명하는 변수로 자체지역의 투자증가량과 서울의 투자증가량을 설명변수로 삼아 이들 두 설명변수가 각 지역의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함.
  - 서울경제의 투자가 13개 시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 지역의 성장률은 자신의 투자에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지역 투자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지역의 투자증가량이 자체 지역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1이라 한다면 서울경제 투자의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성장률에 대한 기여는 평균적으로 약 1/4 정도로 분석됨.

**서울경제 투자의 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의 순으로 큼**

- 서울경제의 투자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수도권(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부산)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 서울경제 투자의 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의 순으로 나타남. 각 지역 투자증가량의 자체 지역 성장률에 대한 기여를 100%로 볼 때 서울지역 투자증가량의 각 지역별 성장률에 대한 기여의 상대적인 비율은 [표 2]와 같음.

[표 2] 서울투자의 지역별 성장률에 대한 파급효과

구분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파급효과	49.7%	15.6%	43.8%	19.3%	23.2%

- 서울과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인접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의 시기가 일치하여 경제적인 연관성이 밀접하므로 수도권에 대한 서울투자의 파급효과는 가장 큼.
- 영남권은 경제적인 연관성 때문에 서울투자의 파급효과는 수도권지역 다음으로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남. 영남권(특히 울산, 포항, 구미공업단지)의 산업발전은 한국산업 발전 초창기 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서울경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 서울투자의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에 대한 파급효과는 비슷하나 수도권과 영남권의 파급효과와 비교하여서는 절반에 달할 정도로 낮음. 이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과 영남권과 비교하여 산업발전이 늦게 시작하였고 서울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임.
- 특히 충청권에 대한 낮은 파급효과는 1980년 대 해당 지역의 저성장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 성장이 활발한 1990년 이후로 분석을 제한한다면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정책건의 및 시사점

- 서울지역 투자의 타 지역 성장기여는 전국 평균적으로 자체지역 투자의 성장기여의 1/4에 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투자는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함.
  - 현행 서울경제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과밀부담금제, 공장총량제, 지방세 중과와 같은 수도권 억제정책은 서울지역의 투자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간 투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음.
  - 서울이 비교우위를 갖는 첨단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서울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투자의 지역 파급효과 때문에 서울 이외의 여타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효과의 타 지역 파급으로 인하여 서울경제는 각 지역과의 연관성을 밀접하게 갖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분권 하에 지방정부간의 경제정책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윤영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ounh@sdi.re.kr